

# 포스코건설 올해 전국에 '역대 최대' 2만5천960가구 공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토탈 스마트 홈 서비스 제공

포스코건설이 올해 전국 22곳에서 총 2만5천960가구를 공급한다. 2018년 15곳에서 공급한 1만9천776가구보다 6천184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1만267가구, 경상권 8천45가구, 전라권 3천525가구, 강원권 3천130가구, 충청권 993가구다.

올해 2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공급을 시작으로 3월에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의 공급에 나선다.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산 45-16일대에 총 4개 단지, 28개 동, 2천656가구 규모다. 층고는 지하 최저 4층, 지상 최고 28층이다.

이 아파트는 강원도 최초로 원주민간중양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축구장 50개 크기의 원주중앙근린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3월에는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 2지구 내에 남양주 더샵 퍼스트 시티를 공급한다. 이 지역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지난 2009년 '해밀마을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이래 10년 만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의 총 10개 동, 1천153가구 규모이며,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청약, 전매제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 단지여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기대가 높다.



5월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염주 더샵'(가칭) 공급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8개 동, 총 1천97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85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인근에 광주지하철 1호선 쌍촌역이 있고, 2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5월에 공급 예정인 평택 지제세교 1블록의 더샵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7층, 19개 동, 1천999가구다. 지제역(SRT, 1호선), 국도 1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인접한 최적의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인천 송도에서는 5월과 6월에 3개 블록에서 1천177가구가 공급된다. 5월에 선보이는 송도 F20-1, 25-1블록 공동주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9개 동, 826가구로 일부 가구에서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6월에 공급하는 E5 블록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III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개 동, 351가구로 일부 세대에서 센트럴파크를 볼 수 있다.

### 차별화한 스마트 시스템 적용

올해부터 더샵 아파트에는 차별화한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다. 포스코

건설은 2018년 8월 포스코ICT, 카카오투 '더샵 스마트 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투를 선별적으로 더샵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투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카카오투어는 음성을 듣고, 대화를 이해하며, 이미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주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지원시스템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포스코ICT와 함께 각 사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연계해 토탈 스마트 홈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건설과 삼성전자 각 사의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 가스, 난방 등과 같은 홈 사물인터넷 시스템과 삼성전자의 TV, 로봇청소기, 세탁기 등의 스마트 가전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토탈 스마트 홈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분양하는 더샵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더샵은 지난해 9월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2018년 한국 품질만족지수(KS-QE)'에서 10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를 기록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소비자포럼 2018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아파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인기 브랜드 아파트로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